



한국의 산토리니, 마추픽추로 불리는 부산시 사상구 감천문화마을 전경. 산 지락을 따라 미로 같은 골목길로 연결된 형형색색의 집들이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달동네 골목길에 문화가 ‘주렁주렁’

■ 부산 감천 문화마을·창작촌 ‘또따또가’

부산은 참 볼 것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항상 관광객들로 북적인다.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 자갈치 시장, 달맞이 고개가 대표적 부산의 관광명소다. 하지만, 부산엔 부산만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구도심에도 상당한 볼거리들이 있다.

그중에도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과 ‘또따또가’라고 하는 원 도심 창작공간이다. 해운대와 자갈치시장으로 대표되던 기존의 부산 관광지와 달리 이곳은 부산의 예술과 역사를 간직한 새로운 문화관광명소다.

최근에는 미국 CNN방송과 프랑스 대표 일간지 ‘르몽드’에 잇따라 소개되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감천 문화마을=부산 사하구에는 참 희한한 동네가 있다. 달동네인데, 문화마을이란. 좁은 골목을 따라 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이곳 달동네에는 전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줄을 이으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와 모든 골목길이 미로와 같지만 결국은 모든 길이 통하는 마을 경관은 이곳 감천 문화마을만의 독특함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마추픽추, 한국의 산토리니로 불리기도 한다.

감천이 단순한 달동네였다면 눈길을 끌지 못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지역 예술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시작한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의 감천 문화마을이 됐다.

감천은 1950년대 태극도 신앙촌 신도와 6·25 전쟁 피난민의 집단거주지로 형성된 마을이다. 따라서 50년대 이후 부산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감천 문화마을에 들어서면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집들의 지붕에 갖가지 원색의 색감을 입히고 마을 어귀와 빈집들을 이용한 미술작품 설치 등이 맨 먼저 눈길을 끈다. 감천 문화마을의 재미는 골목길 투어다.

▶문화마을

6·25때 피난민 집단거주지 예술인들 창작의 옷 입히자 “한국의 마추픽추·산토리니”

▶또따또가

원도심에 60여개 창작공간 40계단 오르며 예술작품 감상 또다른 여행의 재미 쏠쏠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기 위해서는 땀을 뻘뻘 흘리지만, 폭이 넓게는 1m, 좁게는 50cm도 못 미치는 좁은 골목길을 헤집고 다니며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재미가 쏠쏠하다. 골목 내 빈집 6곳이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으로 채워져 있다.

감천 문화마을의 안내관 역할을 하는 하늘 마루는 용두산을 포함한 부산항과 감천항 방면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을 가져 골목길 투어를 마친 뒤 땀을 식히기에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골목길 투어에 앞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인 감내 어울터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옛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이곳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곳이다. 차를 한잔 마시며, 도자기 공방 체험과 갤러리 작품 감상을 한 뒤 옥상 전



주민과 관광객들의 커뮤니티센터인 감내 어울터 내 갤러리. 옛 목욕탕 건물을 리모델링해 갤러리로 이용하고 있다.

망대에 올라 마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빈집 등을 활용한 카페와 아트숍에서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원 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부산시 중구 중앙동과 동광동 일대는 옛 부산의 중심지였다. 6·25 전쟁 이후 부산시청 등 관공서와 인쇄업체들이 몰려들면서 언론·행정·출판의 중심지였지만, 부산시청 이전 후 도심 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한때의 명성은 사라졌다. 광주로 보면 옛 전남도청 인근의 인쇄 골목과 같은 곳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이곳은 도심형 창작공간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을 통해 이 지역은 상업주의 문화 대신 순수 창작문화 공간으로 변모했다. 지가가 하락하면서 지역 작가들이 저렴하게 사무실 등을 임대하면서 지금은 20개 건물에 27개소 60실이 창작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화촬영 명소로 떠오른 40계단을 중심으로 인쇄 골목길과 대로변을 따라 걸으면서 각종 예술작품을 구경하고, 공방 체험과 북 카페에서의 차 한잔의 여유를 즐겨보는 것도 또 다른 여행의 재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감천 문화마을을 여행의 재미는 골목길 투어다. 가파른 골목을 오르는데 힘은 들지만, 골목길 구석 구석과 빈집 등에 마련된 각종 예술작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여행의 깊이를 더해준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